

2nd International Buddhist Youth Forum May 30 - 31, 2002. Auckland - New Zealand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청년포럼'에 참석한 11개국 대표자들. 라이 리마는 개막연설을 한후 5월 30일 저녁 에덴공원에서, 1만5천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감동적인 대중설법을 했다.

세계 불교청년포럼 뉴질랜드서 열려

정보공유 등 3개 선언문 채택

제3차 대회 내년말 한국서

한국 불교계가 2004년 제7차 국제여성불교대회를 유치한데 이어, 제3차 세계불교청년포럼(BYF)도 개최하게 됐다.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와이푸나 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세계불교청년포럼에 참가하고 돌아온 세계 불교청년포럼의 한국본부(WFBN KRC) 회장 선업스님은 5일, 내년 말 또는 2004년 1월 제3차 세계불교청년포럼을 한국에서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젊은 목소리와 불자의 지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계불교청년포럼에서는 국제포교사회 지도위원 종서스님을 비롯한 한국대표 5명 등 일본, 대만,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 마가 개막연설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끊임없이 배움에 힘쓰고 안에서 자신을 찾는 데 힘쓰라"고 설법해 청년 불자들을 고무시켰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3회 포럼의 한국 개최(WFBN KRC 주최)를 비롯, 다음과 같은 3개 항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청년 불자들은 경험, 개성, 사회문화적 차이 등을 극복하고 서로의 이해증진에 노력한다 △세계에 다양한 불교 전통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좀더 많은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다양

한 불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력한다 △우리는 청년 불교도의 하나됨을 위해 각기 다른 불교 전통들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해 지적 자산을 축적한다.

세계의 저명한 고승과 불교학자들이 설립하는 불교대학이 호주에서 열린다.

호주불교협회와 호주 불교기금(Buddhist Foundation)은 22-23일 멜버른시 캠벨 시민센터에서 '불교-평화로운 마음을 향한 지름길'을 주제로 '호주 불교도 대회'를 연다.

세계의 저명한 고승과 불교학자를 초청, 불교의 영원한 진리와 수행의 정수를 듣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정신 개발과 탁월한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호주 불교도대회 개최 22~23일

고승·불교학자 초청, 불교정신 개발 초점



△담나나다스님 △비쿠보디스님 △핀아바로스님

이번 대회에서 설립하는 고승은 말레이시아 불교의 최고지도자인 자 테라바단센터의 원장 스리 담나나다 스님, 호주 시드니 '왓 푸

부다라시' 원장인 탐자오 롬 마하사마이 스님, 태국의 서펜타산원 원장 아잔 브라마보스 스님, 스리랑카 불교출판협회 대표인 비쿠보디 스님, 세계 최대의 불교 웹사이트인 '부다넷' 창시자인 호주인 핀아바로 스님, 말레이시아 알로카 명상센터 원장 마하나다 스님, 호주 '사키야 로절 초예동' 원장인 초예다 라마, 영국의 여수행자인 아잔 타나산티 등이다. 불교학자는 영국 옥스퍼드대 팔리경 전협회 회장인 리처드 고프리치 교수와 미국 치라이드대학교의 불교대학장인 아난다 구루지 교수 등이다.

16관법과 구품왕생(九品往生)을 설하는 <관무량수경>은 <무량수경>, <아미타경>과 함께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며 <무량수경>, <아미타경>과는 달리 법문이 현존하지 않는다.

<관무량수경>은 유송(劉宋, 420-479)의 역경삼장 강량야사(Kālyāṇas, 383?-442?)의 한역(漢譯)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본경의 원전은 한역(漢譯)과 위그르(Uighur)어 역이 있을 뿐이다. 위구어역 <관무량수경>은 일본의 오타니탐담대가 트루판(高昌, 신강위그르자치구) 부근에서 발견한 단편 1장이다. 이 문건의 연구와 해독에 의하면 <관무량수경> 제10 관음권의 한 부분에 상당하는 내용으로 관세음보살의 당음(唐音)을 위구어로 음사한 Kuan-si-im-Pusar이라는 단어를 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역<관무량수경>의 위구어역 중역으로 알려져 있다. 즉 위구어 <관무량수경>단편조차도 법문이 아닌 한역 경전을 원본삼은 번역인 것이다.

이 경의 서장은 마가다의 국왕 빈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7. 구품왕생의 유래

音觀, 세지관(勢至觀), 보관(普觀), 잡상관(雜想觀)의 13정선관(定善觀)과 상배관(上輩觀), 중배관(中輩觀), 하배관(下輩觀)의 3산선관(散善觀)을 설한다. 이를 모두 합하여 <觀無量壽經>의 16관행, 16관법이라고 말한다.

특히 산선3관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품(品, 根機)과 생(生, 往生)을 상배 중배 하배로 나누고 다시 각각 상중하 3품으로 구분하는 구품왕생(九品往生: 上品上生, 上品中生, 上品下生, 中品上生, 中品中生, 中品下生, 下品上生, 下品中生, 下品下生)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품상생은 대승의 가르침을 받는 범부로서 지성심(至誠心) 심심(深信心) 회향발원심(回向發願心)을 발하여 용맹정진하는 대승상선의 범부이다. 상품중생은 대승상선의 범부, 상품상생은 대승상선의 범부이다.

중배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소승을 받는 범부로서 3복 가운데 주로 계복(戒福)을 닦으며 중품상생과 중품하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후자는 불교이외의 선을 받는 사람으로서 삼복 가운데 주로 세간적 복을 실천하며 하품하생에 해당한다.

본경에서는 이와같은 삼배구품관을 기준으로 행자의 생전인행과 왕생관법, 왕생후과를 설하고 있다. 그러나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고 있는 구품왕생사상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는 불교의 영향이 아니라 중국의 전통에서 기원하는 것이다. 법문이 현존하는 <무량수경>과 <아미타경>에도 구품왕생의 사상을 암시하는 내용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전의 연구에 공력을 쏟은 전문가들은 본경의 구품왕생은 <漢書> '古今人表'에 보이는 인물의 9등급 분류(品第) 및 조위(曹魏)시대에 처음 사용된 관리등급인 '구품관인(九品官人)'의 제도를 배경으로 성립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구품왕생이 고대중국의 관품제도를 반영한다는 주장은 현재 유력한 논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9는 서방 금에 해당하는 숫자로서 공극의 숫자이다. 9는 3의 세곱수로서 3배확대의 원리(천지인)에 따라 완성의 원리를 표현한다. <주역산경(周易山經)>에서는 九九八十一이 흠이라고하며 즉 모든 것의 끝,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생의 숫자가 되도록 한다.

권경학회 회주

인도 쉬라바스티서 2000년전 寺址 발굴

부처님 설법 코살라국 유적

고고학자들이 고대 인도의 코살라국 수도였던 쉬라바스티(UP 주 주도)에 소재한 2000여년전 사지에서 유물을 발굴했다고 AFP 통신이 5월 30일 보도했다.

인도 고고학 발굴조사단은 "부처님은 기원전 5세기 무렵 쉬라바스티에서 가장 중요한 설법을 했다"며 "이 번에 발굴된 사지는 부처님 재세시, 고대 인도 코살라왕국의 수도였던 쉬라바스티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배일을 빔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기원전 6세기 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도자기들이 발굴됐으며, 사원의 유적들은 배수구와 벽돌로 쌓은 벽 등 뛰어난 계획 도시의 면모를 확인시켰다.



△불교 8대 성지중의 한 곳인 쉬라바스티에서 발견된 사지.

인도각지 불교개종식 잇달아

럭나우시 2만명·게랄라주 2만명 수계 석가족 청년불자회 3,250명에 수계증

지난해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대규모 불교개종행사에 이어, 지난 5월말과 6월 초 인도 각지에서 대규모 불교 개종식이 개최됐다.

전인도 지정카스트·부족연맹(현법상 보호를 받는 최하층 카스트와 부족)과 로드부다를 품 축의 발표에 따르면 현지 부처님오신날

인 지난 5월 26일, 우파르 브라데쉬 주의 주도(州都)인 럭나우(Lucknow)에서는 약 2만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수계식을 개최했다. 럭나우의 락수만 델라 공원에서 열린 이번 수계식의 계사는 지난 해 11월 4일 델리 수계식에도 수계법사로 참석한 바 있던 부다브리아 라흐스님, 라흐스님은 설

법을 통해 "힌두교의 그늘에 있는 한 인도인들은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하는 불교에 하루빨리 귀의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델리에서 대규모 수계식을 주도한 바 있었던 우디프 라츠씨도 이번 럭나우의 수계식에 참석, '인도 불자의 22가지 서약'을 선행하고 새 불자들에게 연설했다.

이번 개종식을 성사시킨 주역들은 지정카스트·지정부족 연맹 사무총장인 자그지완 프라샤드(Jagjivan Prashad)씨와 로드부다를 품 사무총장인 라홀K. P. Rahul)씨 등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인도 남부의 케랄라 주에서도 약 2만 인파가 모인 가운데 개종식이 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티루바나티푸람에서 거행된 이 수계식 역시 지정카스트·지정부족 연맹이 주관한 것으로, 동 연맹의 케랄라 지부 회장인 라만쿠티(K. Ramankutti)씨의 주도하에 계획되었다.

케랄라의 새 불자들은 랑가-케랄라 불교도 협회 회장인 밀라웨 우파세나(Millawe Upasena)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다. 라만쿠티씨는 개종의 의미에 대하여 "진리

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혁명과 동시에 수백만의 달리드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문화적, 사회적 혁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가족 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수레쉬 판드라 보시드 보드가야 차크마사원 주지 프리야팔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모시고 5월 30일 이타와(Etawal, 6월 1일 메인푸리(Mainpuri)에서 각각 수계식을 열고 석가족 250명과 3천여명에 계 수계증을 수여했다. 메인푸리 수계식은 조안푸르 마을의 법당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인도 부네= 이지는 통신원

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정신적 혁명과 동시에 수백만의 달리드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문화적, 사회적 혁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가족 청년불자회(Youth Buddhist Society, 회장 수레쉬 판드라 보시드 보드가야 차크마사원 주지 프리야팔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을 모시고 5월 30일 이타와(Etawal, 6월 1일 메인푸리(Mainpuri)에서 각각 수계식을 열고 석가족 250명과 3천여명에 계 수계증을 수여했다. 메인푸리 수계식은 조안푸르 마을의 법당 개원식과 함께 열렸다.

인도 부네= 이지는 통신원

고대중국 관품제도 배경으로 성립 추정

비사라의 아들 아사세가 악우 데바다타의 유혹에 빠져 왕위를 찬탈하고자 부왕 빈비사라를 일곱명의 감옥에 감금하는 반역으로 시작된다.

유명한 위제회는 근심과 슬픔으로 초췌하게 되어 멀리 기사굴산에 있는 부처님께 예배하면서 구원을 호소하자 세존은 목건련과 아난을 보내어 위제회를 기사굴산으로 데려온다.

그때 세존은 미간에서 금색광명을 발하여 서방무량세계를 두루비추고 다시 불정(佛頂)으로 거두어들여 머물게 하자 금색의 대(臺)로 변하여 수미산과 같이 되며 서방세계의 정묘국(淨妙國土)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위제회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 그러나 위제회는 "저는 지금 극락세계의 아미타불 계신 곳에 나기를 원 하옵니다"라고 말했다. 세존은 서방 극락세계에 나고자하는 자는 삼세제불의 정업정인(淨業正因)인 세가지 복업을 닦아야 한다고 설하고 일상관(日想觀),수상관(水想觀),보지관(寶地觀),보수관(寶樹觀),보지관(寶池觀),보루관(寶樓觀),화좌관(華座觀),상상상(像想觀),진신관(眞身觀),관음관(觀音觀)

기와지붕시공전문

본 제품은 여와 부와의 합일성으로 시공의 간편함과 능률의 향상을 높이고 규격의 노출이 크므로 하중의 부담을 극소화 하는 개방형 전통 한식기와입니다.

특성은 풍설 폭우 한파의 약천후에 균열이나 동파없이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80년정도)인 제품이며 미려한 곡선의 연속으로 잔잔한 물결의 울동과 같습니다.

한옥기와

청기와

오지와

한식기와

신형기술로 시공한 후 청소까지 완벽하게... 가장 좋은 제품으로 가장 저렴하게

덕신기와는 불교계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오랜 경험과 경험, 그리고 책임있는 신형기술로 각종 기와를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자세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을 비롯한 부자여러분의 많은 상담을 바랍니다.

덕신기와 TEL 02)930-7811, 063)856-8562 H.P 011)302-7812 FAX 02)930-7812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